

## 박경진 배역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유명작가가 된 서지환과 20 살에 함께 냈던 공모전에 있던 비밀이 밝혀진다. 당시 대상을 받은 서지환의 작품이 사실 자신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감출 수 없는 분노, 슬픔, 허탈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 S#. 다리 위, 밤

지환: 미안... 경진아...

지환: 그럴 의도는 없었어...

경진: (당황해하며) 그게 무슨 말이야... 작품이 바뀌었다니...

경진: (분노하며) 우리 둘 작품이 뒤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진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심호흡 하며 차근히 말한다.

경진: (목소리를 떨며) 아니... 바뀌었으면... 말을 했었어야지... 그때...

지환: (엎드려 울며) 나도 처음엔 당황했어... 말하려 했는데... 그땐 너무 기뻐고...

          그렇게 때를 놓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경진: (날뛰며) 아니 시발!!! 그걸 변명이라고 해?!!!

경진: 너 때문에 좇됐잖아, 내 인생!!!!

지환: (팔을 내밀며 난간에 걸치곤 운다) 경진아... 진짜.. 미안... 내가 죽일 놈이야....

경진: (광기 어린 분노, 분노와 실소의 교차) 닥쳐!!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아니었어도!!! (울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 뿐이던 내 재능 다 갖다 버리고 이지경으로 살았다고...  
(실소) 그 상만 탔어도, 내가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나 버리고 간 애미애비 빗 값졌다고 이  
지랄 저 지랄 안 해도 됐다고!!!! 어!!!!!!! 너 때문에!!!!!!! (분노)

E. 퍽 (지환이 떨어지는 소리)

헉헉대는 경진과 정적. 경진은 이상함을 느낀다. 뒤돌아 확인하는 경진. 난간에 아무도 없다.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확인하는 경진. 떨어져 있는 지환

급하게 내려가 지환을 보는 경진. 지환은 살려달라며 손을 내민다. (지환의 흔들리는 시선)

지환: 경진아... 경진아... 살려줘....

놀란 경진은 지환을 도와주려 움찔거리다 서서히 무표정이 변한 후 돌아선다. 등을 돌리곤 걸어 멀어지는 경진